

성경 예언 해설집 <13회>

음식과 수행

천국의 열매 객(gac)

리코펜과 베타카로틴 함량이 엄청난 레드 푸드

‘객(gac)’이라는 과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친숙한 과일이다. 박과의 덩굴식물 열매인 객은 기후가 온화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과일로 인류가 발견한 식물 중 영양소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객은 미국 국립보건원 검색 가능 논문 수만 4만여 건 등록되어 있고 베트남에 등록된 FAO 식품 500여 품목 중 항산화력이 뛰어난 리코펜과 베타카로틴의 함유량이 가장 높은 식품이다. 그래서 ‘객(gac)’을 ‘리코펜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음식뿐만 아니라 한약재로도 쓰였던 과일인데 재배조건이 최저온도가 14도 이상, 최고온도 34도 이하일 때 리코펜과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가장 높아져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된다.



보호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면역력을 증진한다.

둘째, 노화 예방

베타카로틴과 리코펜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인체 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의 산화와 변이를 막아 노화를 예방한다.

셋째, 눈 건강

베타카로틴 성분이 망막의 황반 변이를 막아주어 시력저하를 막고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안구건조증 예방에도 효과적인 식품이다.

넷째, 혈관 건강

객에 함유된 다양한 비타민 성분들이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고혈압,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다섯째, 피부 건강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자외선 등으로부터 피부세포의 노화를 막아 건강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준다.

당근과 토마토의 경우, 베타카로틴과 리코펜 성분이 수용성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기름에 볶아서 섭취해야 체내흡수율이 높지만, 객에는 이 두 성분이 지용성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서 수용성보다 체내흡수율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객 열매는 식물성 성분이기 때문에 식물성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하고 객의 칼로리는 100그램 당 21kcal 정도로 높지 않지만 다른 과일에 비해 열량이 있는 편이며 또 불포화지방산이 있으므로 하루 한 잔 정도를 권장한다.*

이승우 기자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 푸드의 대표적인 식품은 토마토이다. 토마토는 리코펜과 베타카로틴 등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한 항산화 식품인데 객은 베타카로틴이 당근의 2배, 리코펜은 토마토보다 무려 70배나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도 풍부하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여러 가지 항산화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활성산소를 낮추는 효능까지 있다. 객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항산화 기능과 면역력 증진
엄청난 양의 베타카로틴과 리코펜 성분으로 인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사사 겸 선지자들의 예언

(드보라, 삼손, 사무엘)

위의 인물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선지자의 역할보다 정치적으로 활동한 인물들이니 특별한 예언은 없으나 이스라엘의 전환기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다.

단에 관한 드보라의 예언

5대 사사 드보라 여(女)사사는 적군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작사 작곡하여 불렀으니 12지파들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단에 관하여 말하기를 “단이 배에 머무름은 어쩔이요.” 하였다.

[※ 참조: 「이스라엘의 개척자, 단(Dan) (저자: Col. J. C. Gawler)을 보면, 단지파 일부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도시 옴바(Yaffo)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북아일랜드까지 진출하였으며(사 5:17), 거기에서 훗날 덴마크까지 확대되었는데 덴마크인은 그들의 조상 단(DAN)의 이름을 따서 나라를 ‘단 마르크(Dan-mark)’라고 명명하였다. 단 마르크(Dan-mark)의 마르크(mark)는 히브리어로 ‘마련’이며, 창세기 15장 17절에는 ‘여호와와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을 일컬어 히브리어로 ‘마련’이라고 기록하였다.]

당시 단 지파는 내륙 지방 리아스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으니 바다나 강이 없는 데 왜 ‘단이 어찌하여 배를 타고 있느냐’고 예언하였을까. 단에 관한 배는 영적 배를 말하였으니 구원선을 가리킨 것이다. 단 지파는 2대 사사 웃니엘 시대(BC 1천 3백50년경) 처음 분배받은 가나안 소리와 에스타울에서 떠나 리아스 성 원주민을 추방하고 성 이름까지 단으로 고쳐 부르면서 그곳에 독립된 부족 국가를 세우고 가나안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드보라가 가나안 민족과 싸운 시기는 BC 1천2백50년경이요 단 지파가 가나안에서 떠난 후 1백년 지나 전쟁한 기사나 리아스 남쪽 1백리 지역에서 싸울 때에 단의 인접 지역인 납달리 지파까지 이 싸움에 가담하여 큰 공을 세우고 드보라는 납달리를 찬양하였다(사 5장)

삼손은 이긴자의 그림자

모테로부터 신의 은총과 지시를 받아 출생한 사람을 성경에서 ‘나실인’이라고 부르는데 수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여호와

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 나실인이다. 이삭의 아들 야곱, 마노아의 아들 삼손,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 등이 나실인이다. 무자한 여인들이 장기간 여호와께 아들을 얻으려고 호소하여 수태하니 모친들은 아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다.

야곱의 모친과 사무엘의 모친은 아들이 없어 탄식하다가 서원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삼손의 모친은 다른 차원에서 서원하였다. 40년간 불레셋의 혹독한 지배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자가 오기를 갈구하였다. 삼손의 모친은 민족의 고통을 여호와께 호소하는 가운데 신의 계시를 받아 아들을 얻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 본문 사사기 13장~18장을 참고하면 단 지파의 전모를 알 수 있다. 삼손은 모테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하였다(사 13:7)

모친은 수태한 달부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부부간의 합방을 삼가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때에, 머리에 삭도(削刀)를 대어 머리털을 깎지 말라고 경고하므로 모친은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태어날 아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였다. “네 몸에서 출생한 아들이 장성하여 이스라엘을 불레셋에서 구원한다”고 지시하였으니(사 13:5) 모친이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고 기다려졌을까. 제3자가 생각하여도 태산 같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성경상에 특이한 인물이 여러 사람 있으나 삼손 같은 인물은 없다. 12지파 가운데 독특한 부족이 단 지파요 조국을 떠나 떠나면 동방 세계로 찾아가는 것은 신의 지시와 동행이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3천2백년 전 삼손의 출현은 끝날에 단 지파에서 출현할 이긴자의 그림자이다. 삼손은 육적 이긴자로 불레셋 싸움에서 독장군(獨將軍)으로 한 번 싸움에서 적군 1천명을 죽이는 전과를 거두었으니 공중을 나는 기세로 물러드는 적군을 파리채로 파리를 잡아죽이듯 하였다.(사15:15~20)

모테로부터의 거룩한 나실인이 왜 이방 여자, 적국 불레셋 여자를 세 사람이나 상대하였을까. 성경학자들이 삼손을 바람둥이, 난봉꾼으로 취급하여 죄 값으로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다고 비판하나 본문을 상고하면 삼손은 여인에게 애정으로 대하지

않고 여자를 통하여 불레셋과 싸울 명분을 찾으려고 애썼다.

처음 불레셋 여자를 사귀기 때 부모까지 아들에게 충고하기를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불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하느냐. 불가하다”고 하였다. 본문에서 삼손이 불레셋 여인과 사귀는 것은 여호와 뜻인 것을 부모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사 13:4)

삼손이 가지고 있는 비밀 두 가지를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자기의 무서운 힘이 머리칼에서 발생하는 비밀과 불레셋 여인을 상대하는 것은 애정이 아니고 미인계(美人計)를 쓴 것이라는 사실이다. 삼손에 관하여 일생의 행적을 기록하려면 한 권의 큰 책을 써야 될 것이다. 성경 기록상 예언은 없으나 암시하는 바가 많은 전무 후무한 인물이다.

신정(神政)과 인정(人政)의 갈림길에 선 사무엘

수태하지 못하던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여호와께 서원하기를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께 바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다. 한나의 소원대로 아들을 낳으니 젖떨 때까지 집에서 양육하다가 젖을 떼고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서약한 대로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려고 실로 성소를 찾아가 제사장 엘리에게 말하면서 “이 아들은 수태하기 전에 여호와께 드리기로 언약한 아들이니 제사장께서 말아서 성소의 일을 돌보게 하라”고 부탁하였다.

사무엘이 성소 제단에서 제사장을 섬기면서 장성하여 여호와와 음성을 듣게 되었다. 엘리와 그 아들의 죄상을 알리고 제사장의 집안이 망할 것까지 음성으로 전하여 듣고 제사장에게 고하였다.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사요 제사장인 엘리 기문의 남자들이 한 날에 모두 죽었다. 불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성소의 여호와 법궤까지 진중에 옮겨 놓고 싸우다가 불레셋군에게 패하여 법궤를 모시던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적군의 칼에 죽음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은 비보를 듣고 기절하여 죽었다.(삼상 4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법궤가 적군에게 빼앗긴 사례는 사무엘 시대 처음 있었다. 법궤는 곧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법궤가 적군에게 실려간 것은 왕이 포

로가 되어 적에게 멸시를 당한 것이다. 여호와와 신을 두려워하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민족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법궤가 불레셋 땅에 7개월 있는 동안 재앙이 계속 임하는대로 불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신의 두려움을 알게 되어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호송하였다.(삼상 6장) 사무엘이 사사로 재직하는 동안 평화를 유지하였으나 높은 활동이 어렵고 사무엘의 이들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상징적인 여호와의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이방과 같이 인간 왕을 세워 왕정 국가를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강요하였다.

신정(神政) 정치 체제를 폐하고 인정(人政)을 요구하였으니 모세가 세운 신정 국가 체제는 3백년을 유지하다가 폐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정치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신정이라고 사무엘이 강조하였으나 당신의 권고를 거절하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비극을 예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였다. 자기들의 왕을 배반하니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도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암시하였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선택하여 기스의 아들 사울을 대중 앞에 세우니 군중들은 왕에게 만세를 불렀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사가 정치할 때보다 불레셋의 침략이 더욱 심하여 사울 왕조는 40년을 유지하다가 유다 왕조에게 망하였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죽기 전 비밀리에 베들레헴으로 이새의 집을 찾아가 말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어 왕으로 세웠다.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기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나가서 사울 왕조와 대결하여 승리하니 통일된 유다 왕조가 서게 되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왕을 요구할 때 심히 노여웠으나 애국심을 가지고 인내하였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왕국을 유지못하여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선택할 때 마음에 심한 갈등을 겪었다. 당신은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고 살았는데 죄인들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처지가 비통한 것이었다.*

차승도

신록의 계절 오월의 장미꽃 향기처럼 우리의 신앙도 맑고 향기롭게 *^^*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38>

무궁화(無窮花)의 기원(基原)

무궁화의 한자명(漢字名)은 근(槿)·목근(木槿)·근화향(槿花鄕)·훈화초(薰華草) 등으로 부르며, 우리 조상들은 한반도를 일컬어 근역(槿域) 또는 근화향(槿花鄕)이라고 불러 왔고 조선(朝鮮)시대에는 근화조선(槿花朝鮮)이라고 불렀고 예전의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를 일컬어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우리나라에 대해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때 연(燕)나라 소왕(昭王)의 명령에 따라 외래학자(外來學者)였던 추연(鄒衍)이 썼다고 하는 고대 중국의 지리지(地理書)인 산해경(山海經)의 기록을 살펴보면 『동방의 예의 밝은 군자의 나라(한국)에는 훈화초(薰華草)가 많은데 이 꽃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

든다』는 기록이 있으니 무궁화는 가히 오랜 꽃이라고 하겠습니까.

무궁화의 원산지는?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무궁화는 언제 누구를 통해 이곳 동방의 땅 끝 땅 모퉁이인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약 3000여 년전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정착 전쟁 시에 불레셋 민족과의 전쟁에서 삼손 장수를 잃어버린 단지파는 레바논의 소라(Zolar) 땅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시리아를 거쳐 이라크, 이란, 카스피해(海)를 건너 알타이에서 100년간 정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단지파의 1세대들은 거의 사망하고, 2세대들은 고대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거의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몽고와 중국 대륙을 가로 질러 만주를 지나 압록강을 건너 200여 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의 여행을 하여 드디어 한반도에 도착한 이들은 대중국 유역에 고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38>



유라시아 대륙이 원산지인 무궁화 꽃(사론의 장미 Rose of Sharon)

조선 세웠는데 무궁화 역시 앞에서 밝힌 하늘과 왕권의 상징으로 함께 정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땅에는 없었던 무궁화가 한반도로 오기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단지파가 이주해 오면서 유라시아 대륙이 원산지인 무궁화 꽃(사론의 장미 Rose of Sharon)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민족(韓民族)의 기원

이같이 야곱은 선대조상(先代祖上)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을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공식적인 본처인

라헬을 통하여 장자(長子)로 인정한 『단』에게만 심판권을 넘겨주므로 하나님의 적자요 천손(天孫)으로 확인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볼 때 실제로 하나님의 유업이 『단』에게 넘어 갔다면 『단』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상에는 구세주의 증표가 백합화라고 합니다. 그 증거는 합동 찬송가 84장의 후렴 부분에도 있듯이 『구주는 산곡의 백합 명랑한 새벽별...』이라고 구세주의 상징은 곧 백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백합에 대해 다른 의미의 꽃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세주의 상징 무궁화 꽃

즉 이 말씀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하였으며 이 말씀의 뜻은 곧 구세주는 백합화라고 하는 상징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점은 과연 꼭 그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는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라고 하였으니 백합화는 일반의 백합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무궁화』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에는 백합화와 사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 백합화는 주석 1번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주석 1번은 ‘장미’라고 하여 사론의 장미(Rose of Sharon)를 말하는 무궁화라고 기록하였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국조(國祖)인 『단』 즉 단군 할아버지는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구세주의 상징인 『무궁화』를 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곳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함께 와서 지금의 나라 꽃(國花)이 된 것입니다.*

명鍾